

초등학교 실과수업 기피요인에 대한 연구

유난숙*¹⁾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

A study on the causes of the dislik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garding Practical Arts classes

Yu, Nan Sook*¹⁾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Dept. of Educational Psychology and Learning Systems, Florida State University, US**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auses of the dislikes of Practical Arts educ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foundation for the proposition of alternative plans to make more students participate pleasantly and actively in Practical Arts classes. Data were collected via an open-ended survey from 273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rough telephone interviews with five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data were analyzed inductively by NVivo. After the analysis of the student data, the analysis of the teacher data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variables from the student data.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o the causes of the students' dislikes of Practical Arts classes, extrinsic factors such as instruction management, instruction content, teaching facilities and equipment, and teacher characteristics were elicited. Intrinsic factors included complaints about failing to meet students' expectation from Practical Arts, negative perception of Practical Arts, the interest, competency, and fear of the students. Secondly, the students who learned Practical Arts from the Practical Arts specialty teachers gave more answers on instruction management, instruction content, and teacher characteristics than the students who learned Practical Arts from their homeroom teachers did. The students who learned Practical Arts from their homeroom teachers answered that they disliked Practical Arts because of lack of lab facilities and practice than their counterparts did. The analyses of teacher data provided the reasons and contexts of the dislikes of the students such as teaching facilities and equipment, and the anxiety of the students.

1) 교신저자: Yu Nan Sook,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and Learning Systems, Florida State University, Tallahassee, FL, 32306-4453, US
Tel: +82-070-7516-2372, E-mail: nansooksb@gmail.com

Key words: 실과수업(Practical Arts classes), 기피요인(the causes of the dislikes), 실과전담교사(the Practical Arts specialty teache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실과는 학습자의 경험과 실생활에의 유용성을 중시하며, 급변하는 가정생활 환경과 산업 기술 환경에서 학습자가 주도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다양한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는 실천 교과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특히 초등학교 실과는 아동의 수준과 흥미에 따라 아동의 기본적 생활과 삶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되, 이것이 중등학교 기술·가정과에서 청소년의 생활과 삶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그러므로 실과의 교육적 역할과 사명은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가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될수록 그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이 경쟁 위주의 입시교육 영향으로 ‘남과 더불어 사는 능력’이 세계 최하위라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²⁾는 학생들의 생활과 삶의 문제를 다루는 실과교육의 중요성과 실과교육자의 책임감을 절감하게 한다.

하지만, 제 7차 교육과정부터 초등학교 실과 이수학년이 5, 6학년으로 축소되고 3, 4학년에서 실과 학습의 공백이 생김에 따라 저학년 통합 교과의 실과 영역과 실과 교과의 연계가 끊기게 되었다. 또한, 초등학교 현직 교사들이 실과를 초등학교 10개 교과 중 가장 중요하지 않은 교과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한영혜, 2007), 수업 시간과 실습실, 학습 자료 및 실습자료의 부족으로 실과 본질에 맞는 수업이 어려울 뿐 아니라 학생과 교사 모두 실과 교과를 어렵고 번거로운 교과로 느껴 흥미나 관심이 낮은 편이다(방기혁, 서성우, 2001).

한편,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는 학급 담임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실과교과가 편성되어 있는 고학년의 경우 한 교사가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음악/미술, 영어를 지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교사들은 교과 지도와 더불어 생활지도, 특별활동, 재량활동 및 각종 사무 처리까지 해

야 하기 때문에, 밀도있고 질 높은 교육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교사들의 과다한 수업 부담을 경감시키며, 학생들에게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급을 담당하지 않으면서 정해진 교과를 맡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지도하는 교과전담제가 실시되고 있다.

그동안 실과 교과의 인식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돈성, 2002; 김은지, 정남용, 2009; 김진희, 2004; 조윤주, 2003; 2004; 백광희, 2003; 이동원, 문대영, 2008; 최유현, 이정진, 조순기, 송정연, 2000; 한영혜, 2007),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은지, 정남용, 2009; 김진희, 2004; 류승용, 2004; 문미영, 2003; 송현순, 2006; 이동원, 문대영, 2008; 최유현 외, 2000), 실과수업 내용 중 특정 영역에 대한 인식 연구(김돈성, 2002; 노동하, 2003; 노성훈, 2001; 류승용, 2004; 백광희, 2003; 신순임, 2005; 진익수, 2002; 홍월영, 2006) 등이 그것이다.

교사와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서 김진희(2004)는 실과교육의 중요성, 목표, 학습활동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조사 연구하였으며, 이동원과 문대영(2008)은 실과교과에 대한 인식 구성 요인을 요인분석법을 통하여 도출하였으며, 최유현 외(2000)는 실과 수업의 절차적 관점에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실과 수업에 대한 인식정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김은지와 정남용(2009)은 교사와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과교육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들은 모두 제각각 의미가 있지만, 양적인 연구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심층적인 자료 수집 및 해석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송현순(2006)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면담을 통해 실과교과에 대한 흥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였지만,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실과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실과 교과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학생들이 인식하는 실과수업 기피요인에 주목하여 실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학생의 느낌, 생각, 동기 등이 교사의 교수(教授)로부터 학

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3/28/2011032800109.html

생의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매개변인으로 중요하게 작용하기(Doyle, 1977) 때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인식하는 실과수업의 기피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구조화하여 개선점을 밝히며, 기피요인이 실과전담교사 유무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함으로써 학생들이 실과 수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즐겁게 참여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실과전담교사는 학급담임제를 실시하는 학교에서 학급을 담당하지 않으면서 실과를 맡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지도하는 교사를 말한다(강태성, 2008). 선행연구(강태성, 2008; 문대영, 2007; 정미영, 방기혁, 2009)에서 실과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실과전담교사의 도입을 언급한 바, 실과전담교사 유무에 따라 학생이 인식하는 기피요인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교사들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이 인식하는 실과수업 기피요인의 원인과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초등학교 실과교육이 보다 중요한 과목으로 인식되고 적극적으로 교수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문제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학생들이 인식하는 실과수업의 기피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교사들이 인식하는 학생들의 실과수업의 기피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초등학교 학생들이 인식하는 실과수업의 기피요인은 실과전담교사의 유무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비확률적 표집에 의한 편의표집법을 채택하여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서울 소재 초등학교 2개교를 임의로 지정하여 2011년 2월 7일부터 23일까지 273명의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초등학교 교사 5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1. 연구 참여자

가. 초등학교 학생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총 273명으로 실과전담교사가 있는 A학교 학생 171명, 담임교사로부터 실과를 배우는 B학교 학생 102명이었다. 학년과 성별 구성은 <표 1>과 같이 5학년 81명, 6학년 192명(남 148명, 여 125명)이었다.

나. 초등학교 교사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교사는 5명으로, <표 1>과 같이 2명은 A학교 실과전담교사이며, 3명은 B학교 6학년 담임교사들이었다. 참여자는 모두 여교사로 학부 전공이 초등교육이며, 학력은 석사 2명, 학사 3명이고, 교직 경력은 12년에서 21년으로 분포되어 있다.

<표 1> 연구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 수

학교	실과전담 유무	교사	교직경력	학력	담당학년	학급수	학생수	남	여	총 학생수
A	유	갑	13년	학사	5	2	81	91	80	273
		을	21년	학사	6	2	90			
B	무	병	12년	석사	6	1	34	57	45	
		정	16년	학사	6	1	34			
		무	16년	석사	6	1	34			

2. 조사도구 및 자료수집

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질문

개방형 질문지는 학생들이 실과수업에 대해 싫었던 사항이나 이유를 기록하게 한 것이었다. 개방형 질문지 문항은 초등학생들이 인식하는 체육수업의 기피요인과 실태를 파악한 이호철(2003) 연구를 참고로 작성되었다. 초등학교 실과전담교사 2명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질문지 문항의 난이도와 설문 소요 시간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인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년말에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방형 질문을 통한 자료 수집은 2011년 2월 7일부터 11일까지 본 연구 참여 교사들로부터 실과를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실과전담교사로부터 두 개 학급 학생들이 답한 질문지가, 담임교사들로부터 본인이 맡은 반의 학생들이 답한 질문지가 수집되었다. 수집된 질문지는 한글프로그램으로 입력하여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졌다.

나. 교사를 대상으로 한 면담

반구조화된 면담가이드를 통하여 연구참여자가 개방적인 방식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실과 수업의 준비와 실행, 실과 수업을 하는 교실, 학생과의 상호 작용, 실과를 가르치면서 경험해 온 문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교사 2인으로부터 질문이 적절한 지 검토받은 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면담을 하기 전 연구참여자의 이메일을 통하여 면담의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연구참여자로 부터 개별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메일을 통한 사전 작업은 연구참여자가 면담 조사 시 어떤 내용으로 면담이 진행되는 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알고 나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이끌 수 있으며, 면담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다소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면담은 2011년 2월 12일부터 23일까지 전화로 하였으며,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에 1회당 1시간 정도 지속하였으며, 면담의 모든 과정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소형 녹음기를 통해 녹음한 후 전사하여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졌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NVivo 9.0을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NVivo는 질적 자료 분석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약호화(코딩) 자료의 범주화, 조직화가 단계적·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색인체계, 검색기능 및 이론적 작업 기능을 갖추고 있다. 우선 학생 자료를 주제별로 약호화하였으며, 학생 자료 분석을 통해 얻게 된 변수를 이용해 교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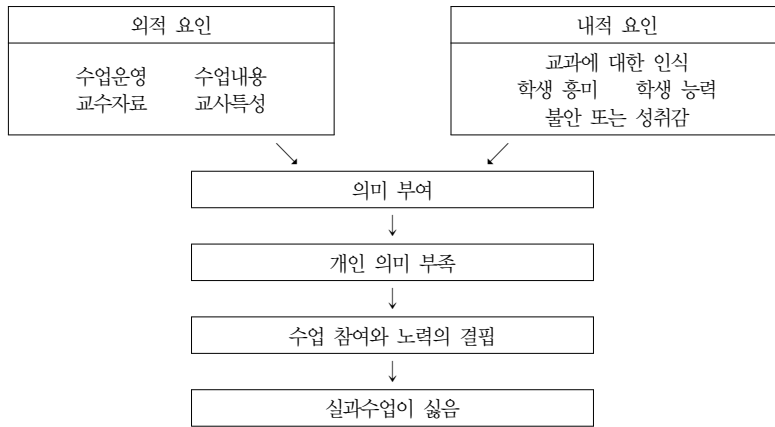
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질문자료 분석

학생 자료 분석은 귀납적 접근방식을 따랐는데, 자료를 면밀히 읽으면서 주제별 약호화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의미 있는 원자료들을 공통적인 주제별로 묶어서 상위개념인 세부 영역으로 통합 분류하였고, 세부 영역으로 분류된 주제들은 다시 의미가 서로 상통하는 주제끼리 논리적으로 맥락을 같이 하는 주제로 묶어서 최종적으로 외적 요인, 내적 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외적 및 내적 요인을 도출하는 데 참고한 Carlson(1995)의 <체육수업에서의 소외·비소외 모형>(p. 472, 그림 1)을 일부 수정하면 [그림 1]과 같다. 여기에서 외적 및 내적 요인은 문대영(2007)이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추출한 실과 교육환경의 범위와 범주와도 관련된다. 실과 교육환경의 범위와 범주는 정책·제도적 환경(교육과정 및 교재 구성과 운영, 각종 기원 정책과 제도), 인적 환경(교사, 관리자의 인식과 태도, 학생·학부모·사회의 인식), 물리적 환경(시설과 설비, 교구와 재료)으로 구분되며, 외적 요인은 정책·제도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 내적 요인은 인적 환경과 관련된다.

한편, 5, 6학년의 발달단계와 의식 수준이 동등하다고 판단되어 실과전담교사 유무, 성별로 단순빈도 비교를 하였는데, 성별 빈도는 서로 유사하여 실과전담교사 유무별 빈도가 많이 차이나는 것만 본문에 언급하였다.

나. 교사를 대상으로 한 면담자료 분석

교사 면담 자료를 면밀히 읽으면서, 학생 자료 분석을 통해 얻게 된 기피요인과 내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찾아 코딩하였



[그림 1] 실과수업에 대한 기피요인의 외적·내적 요인

다. 즉, 학생이 인식하는 기피요인의 원인이나 맥락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교사자료를 분석하였다.

2. 실과수업의 기피요인

가. 외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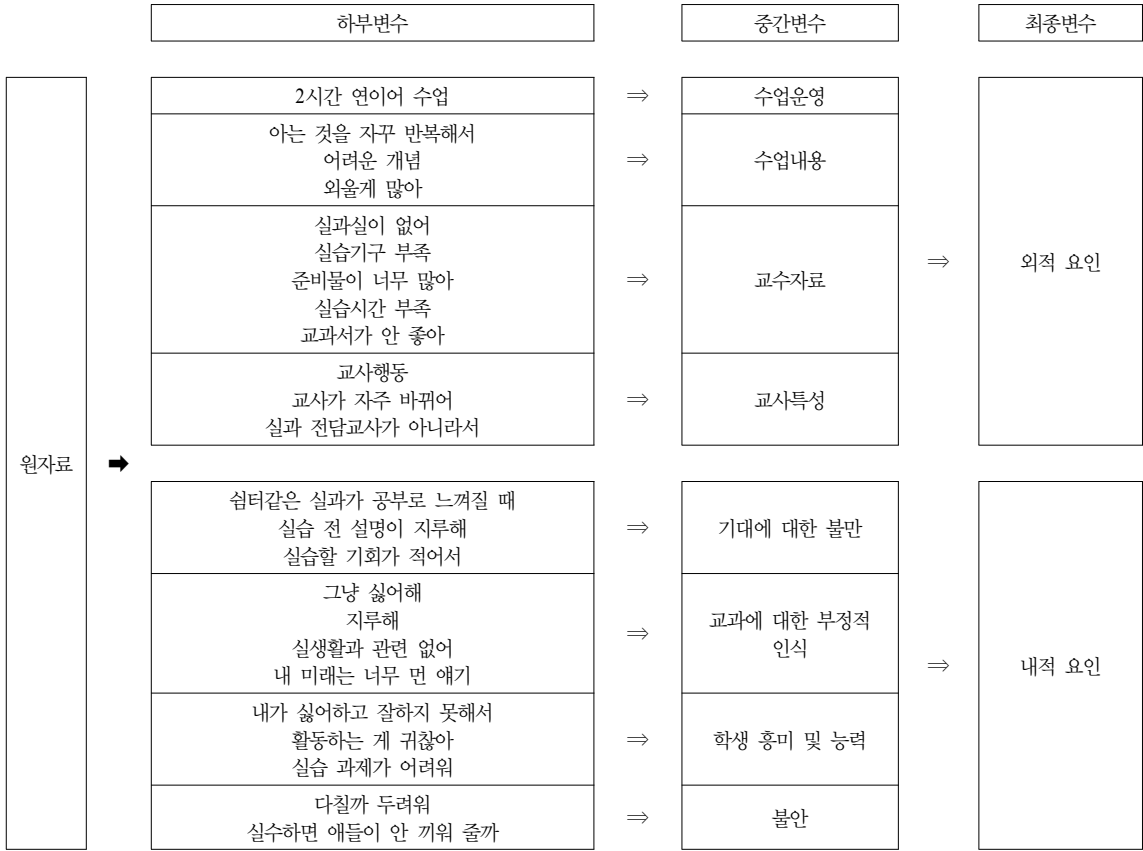
III. 연구의 결과

1. 변수 코딩과정과 코딩수

NVivo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과수업 기피요인의 최종변수(외적·내적 요인)가 도출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실과수업 기피요인과 관련된 원자료 263개가 약호화되었다. 약호화된 263개의 원자료는 관련된 것끼리 범주화를 통하여 24개의 하부변수가 만들어졌다. 하부변수 중에서 관련된 것끼리 묶어서 새로운 변수(중간변수)를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8개의 중간변수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중간변수를 또다시 관련된 것끼리 묶어서 bottom-up 방식으로 좁혀나가는 귀납적인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외적·내적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림 2]).

초등학생들의 실과수업 기피요인 중 외적 요인은 <표 2>와 같다. 외적 요인의 중간변수는 수업운영, 수업내용, 교수자료, 교사특성으로 구성되었다. 초등학생들은 ‘2시간 연이어 수업(13)’을 하고, 수업 내용이 ‘아는 것을 자꾸 반복하고(8)’, ‘어려운 개념(2)’에 ‘외울 게 많아(9)’ 실과가 싫다고 답하였다. 또한 ‘실과실이 없고(19)’, ‘실습기구가 부족(12)’하고, ‘준비물이 너무 많으며(17)’, ‘실습시간이 부족(3)’하고 ‘교과서가 안 좋아(3)’ 실과시간이 싫다고 하였다. 한편, 교사특성에 대해서는 실과전담교사에게 실과를 배우는 A학교 학생들이 많이 언급하였는데, ‘교사행동(13)’, ‘교사가 자주 바뀌어(6)’ 실과가 싫다고 언급했고, ‘실과전담교사가 아니라서(1)’ 담임교사가 임의로 실과시간을 전용하기 때문에 실과가 싫다는 B학교 학생도 있었다.

여기서는 교수자료 위주로 설명을 하고 실과전담교사가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 학생들이 답한 빈도 차이가 많은 중간변수(수업내용, 교사특성)와 하부변수(‘실과실이 없어’, ‘준비물이 너무 많아’)는 실과전담교사 유무에 따라 다른 요인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2] 실과수업 기피요인과 관련된 변수 코딩과정

<표 2> 실과수업 기피요인 중 외적 요인과 관련된 하부변수 및 중간변수

하부변수	A 학교	B 학교	코딩수	중간변수 (코딩수 소계)
2시간 연이어 수업	12	1	13	수업운영(13)
아는 것을 자꾸 반복해서	8	0	8	수업내용(19)
어려운 개념	2	0	2	
외울게 많아	5	4	9	
성과실이 없어	0	19	19	교수자료(54)
실습기구 부족	7	5	12	
준비물이 너무 많아	4	13	17	
실습시간 부족	2	1	3	
교과서가 안 좋아	1	2	3	
교사행동	12	1	13	교사특성(20)
교사가 자주 바뀌어	6	0	6	
실과 전담교사가 아니라서	0	1	1	
계	59	47		106

본 연구 참여 학생들은 실과수업 기피요인에 대해 실습기구가 부족하여 실습활동을 할 때 불편했던 경험을 답하였으며, 교육과정에서 포함되어 있는 실습활동을 위해 필요한 실습기구는 학교에 구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재봉틀이 없는 것도 언급하였는데, 이는 만들기 활동에 필요한 장소와 공구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학교가 전체 응답 중 59.3%로 나타난 연구(최유현 외, 2000), 70% 이상의 교사가 재봉틀이 없다고 응답한 연구(김성률, 2003) 결과와 관련되며, 학생 뿐 아니라 교사의 면담에서도 실과 수업지도에 있어서 아쉬운 점으로 재봉틀이 없는 것이 언급되었다. 본문에서 학생 및 교사의 답변을 인용한 내용 중 괄호안의 글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가 덧붙인 것이다.

문방구에서 구할 수 있는 것(톱)들은 수량도 적을 뿐더러 질이 좋지 않아 자르기가 힘들다. 따라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이외엔 학교에서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학교에 재봉틀이 없어 직접 손바느질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교과과정에서 다소 어긋나는 수업이 된다. 교과과정에 꼭 필요한 것들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A학교 학생 ‘실습기구 부족’>

(교육과정에) 재봉틀 다루기가 있었는데... 재봉틀로 안하고 다 손바느질로 했었어요 학교에 재봉틀도 몇 대 안 돼서 여건도 안 됐고... 그냥 아이들한테 재봉틀 얘기할 때 “애들아 학교에 재봉틀이 두 대 밖에 없어”이렇게 하고 손바느질로 방식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재봉틀이) 두 대 정도밖에 없어요 나와서 줄 서서 (재봉틀을) 한 번씩 봐보는 정도... 천에 일정한 길이만 봐보고, 애들이 많이 기다려야 되는 거죠

<B학교 정교사>

이와 같이 학교에 실습기구가 충분히 구비되지 않은 것은, 결국 학생들의 준비물을 갖고 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더욱 많이 초래하게 된다. 한편, 학생들은 교과서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특히 수업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이나 사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실과책에서 어려운 것을 재미없게 해서

<A학교 학생 ‘교과서가 안 좋아’>

교과서가 싫다. 좀 디자인도 세련되고 사진도 다시 실었으면 한다.

<B학교 학생 ‘교과서가 안 좋아’>

학생들의 실과 교과서 내용의 선호 및 활용도를 조사·분석한 연구(김민배, 2008)에서도 학생들이 실과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흥미와 학습동기가 유발되며 사진이나 그림 등이 세련되게 구성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는 심층면담을 통해 학생이 요구하는 실과교과서가 무엇인지 살펴 본 연구(문대영, 2009)에서 학생들이 새로운 용어 설명이 충실하고 실습 안내가 보다 자세하며, 실용성 있는 활동 과제를 다룬 교과서를 원한다는 결과와 관련된다.

나. 내적 요인

초등학생들의 실과수업 기피요인 중 내적 요인은 <표 3>과 같다. 중간변수는 기대에 대한 불만, 교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학생 흥미 및 능력, 불안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이 실과를 기피하는 이유는 ‘쉽터같은 실과가 공부로 느껴질 때(4)’, 실습을 빨리 하고 싶는데 ‘실습하기 전에 선생님이 하시는 설명이 지루해(14)’, 실과는 실습을 주로 하는 수업이어야 하는데 ‘실습할 기회가 적어서(15)’와 같이 실과수업에 대한 기대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 중에서 ‘실습할 기회가 적어서’는 앞서 언급한 외적 요인 중 ‘실과실이 없어’, ‘실습기구 부족’, ‘실습시간 부족’과 같은 하부 변수와 관련 있지만, 학생들이 실과수업을 실습 활동을 위주로 해야 한다는 기대에 대한 불만에 더 초점을 맞추어 답했기 때문에 내적 요인으로 코딩되었다.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싫어하고(6)’, 국어, 영어, 수학과는 달리 실과수업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루해서(39)’, 더구나 ‘실생활과 관련 없는(17)’ 내용도 있고, 진로 관련 수업내용의 경우 ‘내 미래가 너무 멀어(3)’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답도 있었다. 실과가 싫은 내적 요인 중에는 학생 흥미 및 능력, 불안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실과 수업 내용 및 활동이 ‘내가 싫어하는 것이고 잘 하지도 못해서(17)’, ‘활동하는 자체가 귀찮기 때문에(7)’, ‘실습과제가 어렵기 때문(22)’이고 더구나 실습도구의 사용이 익숙

〈표 3〉 실과수업 기피요인 중 내적 요인과 관련된 하부변수 및 중간변수

하부변수	A 학교	B 학교	코딩 수	중간변수
شط터같은 실과가 공부로 느껴질 때	1	3	4	기대에 대한 불만(33)
실습 전 설명이 지루해	10	4	14	
실습할 기회가 적어서	9	6	15	
그냥 싫어해	5	1	6	교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65)
지루해	36	3	39	
실생활과 관련 없어	5	12	17	
내 미래는 너무 먼 얘기	2	1	3	학생 흥미 및 능력(46)
내가 싫어하고 잘하지 못해서	10	7	17	
활동하는 게 귀찮아	5	2	7	
실습 과제가 어려워	14	8	22	불안(13)
다칠까 두려워	3	8	11	
실수하면 애들이 안 끼워 줄까	2	0	2	
	102	55		157

하지 않아서 ‘다칠까 두렵고(11)’, 혹시라도 ‘실수하면 애들이 안 끼워 줄까(2)’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두 개의 하부변수(‘실습 전 설명이 지루해’, ‘지루해’)를 제외한 다른 변수를 위주로 언급하고 실과전담교사가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 학생들이 답한 빈도 차이가 많은 두 개의 하부변수는 실과전담교사 유무에 따른 요인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1) 기대에 대한 불만

본 연구의 참여 학생들은شط터같은 실과가 공부로 느껴질 때 실과가 싫다고 했으며, 실습 전에 교사들이 하는 설명을 지루해 하였으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여러 활동들을 하지 못해서 실과를 싫어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송현순, 2006; 최유현 외, 2000)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다. 송현순(2006)은 학생들이 실과수업을 실습중심의 수업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실과수업에 흥미를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만들어 보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필기만 하고 설명 위주로 진행되는 실과수업은 다른 교과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최유현 외(2000)의 연구에서도 학생을 대상으로 실과수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실과 수업은 실습이 많아야 한다’가 3.81(5점 리커트 척도)로 높게 나타났다.

나는 실과시간에 시험을 볼 때가 싫습니다. 실과는 공부이기도 하지만 공부인 느낌을 받기가 싫다.

<A 학교 학생, ‘شط터같은 실과가 공부로 느껴질 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재미있는 활동들을 다하지 못해서 아쉽다.

<A 학교 학생, ‘실습할 기회가 적어서’>

하지도 못할 활동들이 책에 실려 있으니 보고서 대충 익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A 학교 학생, ‘실습할 기회가 적어서’>

이러한 학생들의 실과수업에 대한 기대에 대한 불만은 앞서 외적 요인에서 언급한 교수자료에 대한 것과 관련 있으며 특히 실습하기 어려운 것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A 학교 갑교사의 면담내용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갑교사: 실습이 생각보다 준비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학교 자료실 선생님이 계시는데 자기는 과학만 담당한다면서 실과 준비는 잘 모르겠대요. 예를 들어 과학 실습하러 가면 과학실에 세팅이 돼있는데 실과는 그걸 안 해주시는 거예요. 과학만 하신다고 말씀하면서 딱 한 박스를 던져주시더라고요. 그거(실과) 관련된 자료 있냐고 했더니만. 그래서 제가 그걸(박스를) 조별로 분류를 다 해서 실습을 했어요.

연구자: 조리실습이요?

갑교사: 조리실습도 그렇고. 5학년 때 전기선 연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별로 제가 다 세팅해놓고 아이들이랑 했거든요.

<A 학교 갑교사>

이와 관련된 사항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성률(2003)은 실습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이유로 실습 도구의 부족, 실습실이 따로 없다는 것, 실습을 위한 사전사후 처리에 시간이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영혜(2007)는 62.9%의 교사들이 실과를 가르치기 힘든 교과목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교과내용이 현실과 거리가 멀다.’, ‘실습실이 없다’, ‘준비물 갖추기가 어렵다’로 조사되었다. 또한 을교사는 실과실 예산을 언급했는데, 실과실 예산이 적으며, 실과실 예산 관리는 과학과에서 담당한다고 하였다. 한영혜(2007)는 적은 수의 교사(24.2%)들만 실과지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충분하다고 하였다.

딱 실과실 예산은 50만원 이내였나? 하여튼 그 안에서 쓸 수 있었어요. 1년에. 또한 과학 부장님 소속에 실과실 관리가 있어서 과학 부장님 결재를 받았어요.

<A 학교 을교사>

2) 교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본 연구 참여 학생들은 실과수업시간에 배운 것이 즉각적으로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실제 삶과 관련이 없어서 실과수업 기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윤지현(2000)은 그동안 실과교육이 실제 삶과 관련되어야 유익하다는 주장들에 영향을 받아 이와 같이 인식한다고 하였다. 윤지현(2000)은 이 주장들이 ‘생활’에 대하여 외면적인 해석의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눈에 보이는 생활의 양상에 교과 지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교과에서 배운 지식과 기능은 모든 사람의 실제 생활에서 동일한 양상과 조건을 가지고 재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외면적이라고 하였다.

어차피 실생활에서 경험하여 아는 것을 배운다. 실제로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

<A 학교 학생, ‘실생활과 관련 없어’>

수업 내용에서 애완동물을 어떻게 키우는지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애완동물을 기른 적도 없고, 또 그래서 애완동물을 새로 기르기는 너무 부담이 되어서 공감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B 학교 학생, ‘실생활과 관련 없어’>

한편, 학생들이 공부에 쫓기다보니, 당장 눈앞에 닥친 입시나 학교 공부와 거리가 먼 자신의 미래나 꿈 얘기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다.

아직은 어린데 벌써 일과 직업을 생각하니 어렵다.

<B 학교 학생, ‘내 미래는 너무 먼 얘기’>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싫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천천히 나중에 생각해도 되기 때문이다.

<B 학교 학생, ‘내 미래는 너무 먼 얘기’>

3) 학생 흥미 및 능력

본 연구 참여 학생들은 실과 수업 내용이나 실습활동을 싫어하고 잘 하지 못할 때 실과수업이 싫다고 하였다.

내가 싫어하는 만들기가 많다.

<A 학교 학생, ‘내가 싫어하고 잘 하지 못해서’>

가끔 내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을 할 때 걱정이 되고 잘 못해서 아주 가끔 실과시간이 싫었다.

<B 학교 학생, ‘내가 싫어하고 잘 하지 못해서’>

또한 실습과제를 할 때 ‘가꾸기’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이나 ‘공구·기구 다루기’에서 도구를 다루는 게 힘들거나 익숙하지 않은 것을 실과수업 기피요인으로 답하였다. 최유현 외(2000)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즉,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과수업에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영역의 순서를 알아본 결과, 가꾸기, 공구·기구 다루기, 요리하기와 만들기, 컴퓨터 다루기, 기르기 순으로 답했다고 한다.

식물 키우기에서 물뿌림망을 넣는 것이 어렵고 나무의 뿌리가 잘 퍼지게 손질하는 것이라 나무가 쓰러지지 않

게 발흙을 넣어서 나무가 넘어지지 않게 세우는 것이 어려웠다.

<A학교 학생, '실습과제가 어려워'>

7단원에서 전선을 벗기는 게 어려웠고, 8단원은 바느질을 할 때 좀 많이 어려웠다.

<A학교 학생, '실습과제가 어려워'>

재활용품으로 필요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 찾는 것이 힘들었고 만드는 것이 싫고 힘들어서 싫었다.

<B학교 학생, '실습과제가 어려워'>

4) 불안

학생들은 실습활동 시간에 다칠까 두려워 실과수업이 싫다고 하였다. 실습 활동 중 발생하게 될 안전사고의 예방과 부상의 두려움과 관련된 사항은 학생 뿐 아니라 교사의 면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들끼리 선반을 만드는 것은 위험한 것 같다. 선반 만들기를 하다가 톱이 2번이나 부러져서 조심하지 않으면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B학교 학생, '다칠까 두려워'>

납땀, 못박기, 톱질하기, 요리할 때의 불 사용 등 다칠 위험이 있는 활동이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점이 불편했다.

<B학교 학생, '다칠까 두려워'>

제가 사실 그(납땀 관련) 일정연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신감 갖고 했다가 아이들도 많이 데이고 저도 크게 데이고 그래서 위험하더라고요. 다루는 게. 하여튼 이번에는 그걸 안 하고 전기 코드선을 했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이 도구, 연장 다루다가 다치더라고요. 면장갑을 준비 안했더니... 나중엔 면장갑을 준비하라고 하고 갖고 오래도 안 갖고 온 녀석들은 피 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A학교 갑교사>

한편, 소수이지만, 모듈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실수를 하게 되면 같은 모듈의 다른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당할까 봐 실과수업이 싫다는 답도 있었다.

애들이 잘 안 끼워준다. 실수를 조금만 해도 애들한테

까인다.

<A학교 학생, '실수하면 애들이 안 끼워 줄까'>

다. 실과전담교사 유무에 따라 다른 외적·내적 요인

1) 실과전담교사 유무에 따라 다른 외적 요인

실과전담교사가 있는 A학교와 담임이 실과수업을 맡는 B학교 학생이 언급한 내용의 빈도 차이가 많은 변수는 <표 2>와 같이 수업운영, 수업내용, 교사특성과 같은 중간변수와 '실과실이 없어', '준비물이 너무 많아'와 같은 하부변수이다. 이를 실과전담교사가 있는 A학교 학생이 많이 언급한 변수, 실과전담교사가 없는 B학교 학생이 많이 언급한 변수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A학교 학생이 B학교 학생보다 많이 언급한 변수

실과수업 기피요인을 '2시간 연속'으로 답한 학생은 대부분 실과전담교사로부터 실과를 배우는 A학교 학생들이었다. 실과전담교사가 있는 경우, 수업운영의 편이성과 학생관리 차원에서 2시간 연속으로 실과수업을 편성하게 되는데, 실습 활동이 있을 때에는 수업 운영면에서 좋은 점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학생들에게는 2시간 연속으로 운영되는 수업이 실과수업 기피요인이 되었다.

실과전담교사가 운영할 때는 대부분 블럭수업을 하고 있어요. 쉬는시간도 아이들과 함께 있고요(아이들 관리 차원에서요).

<A학교 갑교사>

수업내용의 경우, 실과전담교사가 담임교사와 달리 학생들에게는 실과수업의 '전문가'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실과전담교사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은 반면, 간혹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 기피요인으로 작용되었다.

난생 처음 배운 것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힘들었다.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힘들었다.

<A학교 학생, '어려운 개념'>

실과전담교사에게 배우는 학생들은 담임교사에게 배우는 학생들보다 교사특성 변수에 더욱 많은 응답을 하였다. 거의 모든 교과를 담당하는 담임교사에 비해 일주일에 한 번 실과시간에만 볼 수 있는 실과전담교사가 학생들에게 교사특성의 영향을 더 많이 주었기 때문이다. 한편, 실과수업 기피요인으로 ‘교사가 자주 바뀌어’의 경우, 학교현장에서 실과전담교사를 누가 맡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학생들의 이러한 답변은 A학교 갑교사의 답변에서 그 맥락을 알 수 있었다.

선생님이 자주 바뀌면서 혼란스러웠다.

<A학교 학생, ‘교사가 자주 바뀌어’>

교과전담교사는 주로 휴직이나 산후 예정이나 병약자에게 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 전임자도 명퇴 대상자라 1학기까지 실과전담하시고, 8월에 명퇴하셨어요.

<A학교 갑교사>

이는 정미영과 방기혁의 연구(2009)에서 현행 교과전담제 운영의 문제점으로 교사의 특기 및 전공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사정에 의해 결정되는 교과전담교사 선발 방법을 든 것과 관련된다.

나) B학교 학생이 A학교 학생보다 많이 언급한 변수

실과전담교사가 없는 B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실과실이 없는 것을 실과수업 기피요인으로 꼽았다. 실과실이 없으면 실습을 할 때 얼마나 불편한지 학생들의 답변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는 78.9%의 학교가 조리실이 없으며, 61.6%의 학교가 가꾸기·기르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기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최유현 외(2000)의 연구결과와 관련된다.

학교에서 실과실이 있으면 더 나은데 반에서 만들면 처리하기도 어렵고 나중에 집에 가져가기도 어렵고 냄새가 나기도 한다. 그래서 바다과 책상, 그리고 화장실의 세면대까지 더러워진다. 그래서 실습시간이 실과시간에서 가장 싫다.

<B학교 학생 ‘실과실이 없어’>

샌드위치를 만들 때 음식을 가져와서 반에서 조리를 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었고 또 더러워진 손은 화장실 가서 닦아도 되지만 화장실이 더러워졌고 또한 그릇과 칼을 닦을 수 없어 불편하고 따뜻해야 맛있는 재료도

데워 오더라도 가지고 와서 좀 있으면 차가워져서 불편했다. 그래서 실습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B학교 학생 ‘실과실이 없어’>

한편, A학교에는 실과실이 있어서 좋은 점이 있지만, 실습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스토브나 환기시설이 없어서, 정작 공간만 제공되는 이외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A학교 을교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실과실은 학교마다 다 있지만 그 용도는 음식만들기 정도로 제한 스테인리스 식탁으로 돼있는데 거기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되는데 재료가 준비돼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식재로나 그런 건 우리가 준비를 해가야 돼요. 공간만 제공되는 썬. 나무를 자른다가나 톱밥처리같은 경우도 실내니까 그런 것도 힘들고. 니스칠도 냄새문제 때문에 힘들고 실과실은 있는데 음식만들기 외에 다른 용도로 쓰긴 어려워요.

<A학교 을교사>

반면, 실과전담교사와 실과실이 있더라도 전문적인 실과전담교사가 지속적으로 담당해야 실습기구 부족 문제와 실과실 시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전에) 거의 낡아서 버릴만한 그릇만 있었는데 제가 실과를 2년째가 하면서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도구들을 사서 넣었어요. 그 때 전기레인지도 신청했는데 공사비만 몇 천만원 든다고 해서 전기레인지는 안 뺐어요. 휴대용 가스렌지가 위험하니까 (전기레인지들) 신청했던 건데.

<A학교 을교사>

2) 실과전담교사 유무에 따라 다른 내적 요인

실습전담교사에게 실과를 배우는 A학교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B학교 학생보다 하부변수 ‘실습 전 설명이 지루해’에 더 많은 답변을 했다. 이는 A학교가 2시간 연속해서 수업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다. 즉, 2시간 중 한 시간은 실습을 하기 전 이론 설명이나 실습과정 및 방법을 설명하게 되는데, 학생들은 실습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설명을 듣는 시간이 지루하

기 십상이라고 하였다.

실과수업 기피요인에 대해 ‘지루해’라고 답한 학생들은 A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외적요인의 중간변수(수업운영, 수업내용)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실과교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즉, 실과전담교사도 열심히 교재연구를 하고 있지만, 학생들에게는 실과전담교사에 대한 기대가 크고, 현실적으로 재미있는 수업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끔 이론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학생들은 실과교과가 다른 수업에 비해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교사가 하는 설명을 듣고 앉아있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습을 할 때는 재미있는데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면 정말 지루하다. 그리고 실과라는 과목의 중요성도 잘 모르겠다. 국어, 수학, 과학, 사회는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도 열심히 하게 되는데 실과수업은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소홀히 하게 되고 대충대충 하게 된다.

<A학교 학생, ‘지루해’>

B학교 학생들에 비해 A학교 학생들의 ‘지루해’라는 답변이 많은 이유는 담임교사인 무교사에게서 찾을 수 있었다. 즉, 담임교사는 실과교과가 여러 개의 수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학생들 상황을 봐서 간단하게 끝내는 반면, 실과전담교사는 실과교과에 대한 비중과 책임이 크기 때문에 실과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많은 내용을 가르치려 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실과수업을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였다.

연구자: 실과를 가르칠 때 주안점 두는 부분이 뭔지?

무교사: 이론은 애들이 지겨워하거든요. 그래서 실습 쪽으로 이론을 조금 하고 실습을 많이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설명을 많이 하는 걸 애들이 싫어하니까. 듣는 능력이 약해서 애들 활동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연구자: 그럼 실과 수업에서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건 뭔가를 하는 거네요?

무교사: 네..애들이 쉬면서 답소도 나누고

연구자: 실과 교과는 활동도 하면서 쉬어가는 과목이겠네요. 애들한테는

무교사: 담임일 때는 그렇고 교담쌤은 좀 더 철저하게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담임때는 덜덜하게 하죠.
<B학교 무교사>

한편, 학생들의 실과전담교사에 대한 기대와 그에 반한 현실은 실과전담교사를 배정할 때 심화전공은 별로 고려하지 않는데 있다. 성기훈 외(2001) 연구에서도 교과전담 교사에게 교과목을 배정할 때 교사의 전공과 특기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교사: 영어 잘하는 선생님은 영어하고, 나머지 선생님들이 그냥 배당해서. 실과가 만만하다고 생각하고 이러니까.

연구자: 그럼 실과전담은 다른 음악/미술/체육 전담에 비해서 접근하기가 쉬웠나요?

무교사: 네. 음악이나 미술은 기능이 더 많이 필요한데 실과는 특별한 기능없이도 바느질같은 과목 나오면 가르치기가 쉬우니까. 어려운 게 나와도 연습해보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실과전담교사의 교과배정에 심화전공은) 고려하지 않아요.

<B학교 무교사>

실과전담교사 유무에 따라 다른 기피요인에는 수업운영, 교사특성, 교수자료 등이 있었다. 즉, 실과전담교사로부터 실과수업을 받는 학생은 실과를 싫어하는 요인으로 수업운영, 교사특성을 꼽았으며 담임교사로부터 실과수업을 받는 학생은 실과 교수·학습실이 없는 것을 기피요인으로 답했다.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학생들이 실과수업 기피요인을 알아보고, 실과전담교사 유무에 따라 다른 기피요인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이 실과수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즐겁게 참여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273명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과 초등학교 교사 5인을 대

상으로 한 면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NVivo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학생 자료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고, 학생 자료 분석을 통해 얻게 된 변수를 중심으로 교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실과수업 기피요인 중 외적 요인에는 수업운영, 수업내용, 교수자료, 교사특성 등이 있었고 그 중 실습기구 부족이나 실과 교수학습실 관련 문제점 등과 같은 교수자료에 대한 언급이 제일 많았다. 내적 요인에는 기대에 대한 불안, 교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학생 흥미 및 능력, 불안이 있었다.

둘째, 실과전담교사 유무에 따라 다른 기피요인을 살펴본 결과, 실과전담교사로부터 실과수업을 받는 초등학생들은 수업운영 및 내용, 교사특성 등을 기피요인으로 답변하였으며, 담임교사로부터 실과수업을 받는 초등학생들은 실과 교수학습실이 없는 점을 기피요인으로 많이 지적하였다. 학생들이 인식하는 기피요인 중에서 ‘실습기구 및 시설 부족’, ‘실습할 기회가 적어서’, ‘불안’ 등은 교사들도 동일하게 초등 실과교육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어서, 학생과 교사 모두에서 공통적인 내용과 동일한 맥락을 찾을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실과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실과전담교사제 도입을 언급한 바, 실과전담교사가 있는 학교 학생들은 실과수업 기피요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실과전담교사 유무에 따라 학생들의 기피요인이 종류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며, 실과전담교사가 있는 경우에 오히려 학생들은 수업운영 및 내용, 교사특성 등을 실과수업 기피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학교현장에 실과전담교사제가 도입되어도 그 배경기준이 교사의 실과교과에 대한 전문성이 아니라 교사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시설·설비가 갖춰진 실과 교수·학습실과 같은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 실과 교육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초등학교의 실과교사 전담제에 대한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과전담교사제 도입은 수준 높은 실과전담교사 확보와 실과 교수·학습실이 갖춰져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한편, 문대영(2007)은 한 연구참여자를 통해 실과 교육환경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에서 실과전담교사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언급했는데, 학년 내에서 프로젝트별로 전담제를 운영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학생들의 실과수업 기피요인들은 실습 활동과 관련된 것이

많았으며, 이들을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도출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외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운영, 교육환경 재정비, 교사특성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내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실과교과에 대한 인식, 학생 흥미와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외적 요인 중 교사특성에 대한 대책으로는 실과전담교사제를 확대할 것과 실과전담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실과전담교사의 경우 교과의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오히려 학생이 실과수업을 싫어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교과전담교사제는 기존의 학급 담임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과교육의 전문성 신장을 꾀하기 위해 필요하며(강태성, 2008), 고학년으로 갈수록 교과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특히 실기나 실습을 다루는 교과는 교사에게 큰 부담이 되어 왔기 때문에, 실과교과전담제가 본래 취지에 맞게 확대·실시되는 것이 필요하다(성기훈, 박기호, 임영무, 2001; 정미영, 방기혁, 2009).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의 실과 전담교사제가 학교 현장에서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지 동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학생들의 실과수업 기피요인을 살펴보았는데, 이에 덧붙여 학생들이 실과수업이 싫을 경우 수업시간에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하는지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실과수업을 지속적으로 기피하는 학생 뿐 아니라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기피요인과 참여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함으로써 두 유형의 비교 분석을 통해 실과수업의 문제점과 교육적 시사점을 찾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서울에 있는 두 개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었다. 이에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의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연구가 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게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과수업 기피요인을 살펴보았는데, 이와 더불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과수업(기술·가정) 기피요인을 살펴보는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실과교육과정의 총체적인 진단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태성 (2008). **초등학교 교과전담제의 운영 실태와 효율적인 운영방안**. 금오공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교육과학기술부 (200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실과)**.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및 제2007-79호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V): 수학, 과학, 실과. pp. 233-289. http://www.kice.re.kr/ko/board/list.do?menu_id=10136에서 2011년 1월 3일 인출.

교육인적자원부 (2007).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0]. http://www.kice.re.kr/ko/board/list.do?menu_id=10135에서 2011년 1월 3일 인출.

김민배 (2008). 실과 교과서 내용 구성에 대한 학생 및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1(2), 89-109.

김돈성 (2002). **초등학교 교사들의 실과 재배교육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성률 (2003).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실과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제주도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지, 정남용 (2009). 초등 실과교육에 대한 초등교사, 초등학생, 학부모의 인식 비교 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2(2), 21-35.

김지숙, 류상희 (2003).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양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6(1), 105-117.

김진희 (2004). **초등학교 학생과 교사의 실과 교육에 대한 인식**. 청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노동하 (2003). **초등학교 실과 가꾸기 영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현장실태 및 인식도 조사에 관한 연구**. 청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노성훈 (2001). **실과 가꾸기 학습에 대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식과 실습 실태**. 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류승용 (2004). **실과 '기르기' 영역에 대한 초등학교 학생의 인식 및 실습 실태 조사**. 청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대영 (2007). 실과 교육환경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0(1), 23-38.

_____ (2009). 실과 교과서 개발 방향: 교사와 학생은 무엇을 원하는가?.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2(1), 1-14.

문미영 (2003). **제7차 실과 교육과정에 대한 초등학교 학생의 인식과 영역별 학습요구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방기혁, 서성우 (2001). 제7차 실과교육과정 적용상의 문제점 및 발전 방안.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4(3), 47-64.

백광희 (2003). **초등학교 교사들의 실과 가정 영역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조사**. 인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성기훈, 박기호, 임영무 (2001). 초등학교 교과전담 교사 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초등교육**, 13(1), 315-351.

송현순 (2006). 초등학생들의 실과교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실과교육연구**, 12(4), 95-110.

신순임 (2005). **초등학교 교사의 실과 가정 영역에 대한 인식 및 운영 실태**.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지현 (2000). '생활양식'의 고찰을 통한 실과교육 목적의 재개념화.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3(1), 143-168.

이동원, 문대영 (2008). 실과교과에 대한 초등학교 학생과 교사의 인식 구성 요인.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1(3), 1-19.

이호철 (2003). **체육수업 기피요인에 대한 소의 학생들의 문화기술적 접근**. 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미영, 방기혁 (2009). 초등학교 교육을 위한 실과교과전담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2(1), 15-42.

진익수 (2002). **실과 재배영역의 실습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인식**. 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운주 (2003). 초등학교 교사의 실과교육에 대한 인식 세분화.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6(4), 159-168.

_____ (2004). 초등학교 교사의 실과교육에 대한 인식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7(1), 175-185.

최유현, 이정진, 조순기, 송정연(2000). 초등학교 아동 및 교사들의 실과 수업에 대한 인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3(2), 35-60.

한영혜 (2007). **초등학교 교사들의 실과교과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월영 (2006). **초등학교 교사와 아동의 실과 의생활 영역에 대한 인식 및 실습 실태**. 부산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Carlson, T. B. (1995). We hate gym: Student alienation from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14, 467-477.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과수업 기피요인을 알아봄으로써 학생들이 실과수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즐겁게 참여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초등학생 273명의 개방형질문에 대한 응답과 초등학교 교사 5인을 대상으로 한 면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NVivo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학생 자료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고, 학생 자료 분석을 통해 얻게 된 변수를 중심으로 교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실과수업 기피요인 중 외적 요인에는 수업운영, 수업내용, 교수자료, 교사특성 등이 있었고 그 중 실습기구 부족이나 실과실 관련 문제와 같은 교수자료에 대한 언급이 제일 많았다. 내적 요인에는 기대에 대한 불만, 교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학생 흥미 및 능력, 불안이 있었다. 둘째, 실과전담교사 유무에 따라 다른 기피요인을 살펴본 결과, 실과전담교사가 있는 학교의 초등학생들은 수업운영 및 내용, 교사특성에 대한 응답을 많이 하였으며, 실과전담교사가 없는 학교의 초등학생들은 실과실이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많이 하였다. 학생들이 인식하는 기피요인 중에서 실습기구 및 시설 부족, 실습할 기회가 적어서, 불안 등은 교사 면담에서도 공통된 내용과 맥락적인 설명을 찾을 수 있었다.

■ 논문접수일자: 2011년 12월 8일, 논문심사일자: 2011년 12월 19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6월 28일